

153km 쏘고 커브에 눈 뒀다... '첫 10승&규정이닝' 정조준



KIA 이의리, 데뷔 2년 만에 본격 포피치 투수 거듭나
“올해는 장난도 줄여...안아프고 끝까지 던질 것” 약속

“장난도 줄이고 있습니다.”
작년의 아쉬움이 있었을까? 2021시즌은 전반기에 잘 나갔다. 괴물 투키라는 소리도 들었다. 2020 도쿄올림픽 야구대표팀에서 승선하는 등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손가락 물집이 잡혔고, 턱아웃에서 계단을 잘못 디더 발목 부상을 입고 그대로 시즌 아웃됐다.
롯데 최준용과 경합 끝에 신인왕에 올랐다. 그래도 풀타임을 못한 것이 걸렸다. 100이닝도 채우지 못했다. 고졸 신인으로는 제몫을 다했지만 성에 차지 않았다. 2022시즌에는 이의리(20)가 첫 풀타임 선발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 벌써 100이닝을 훌쩍 넘겼다.
지난 1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시즌 7승을 따냈다. 내용이 완벽했다. 7이닝을 10개의 탈삼진을 곁들여 2피안타 2볼넷 무실점 투구였다. 율타율 구속, 제구, 변화구 등에서 가장 뛰어난 구위를 과시했다. 스스로 “오늘은 다 좋았다”

고 말할 정도였다.
올해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 바로 커브와 슬라이더의 완성도였다. 작년 시즌은 주로 체인지업을 변화구로 사용했다. 커브와 슬라이더는 미완성이었는데 올해 제구가 되고 있다. 이날도 체인지업은 단 2개만 던졌다. 대신 커브(19개)와 슬라이더(18개)를 같은 비중으로 던졌다.
특히 커브에 눈을 뒀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왼손 투수에게 커브는 절대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페이스 오프, 즉 압급조절을 위해서는 커브가 필수적이다. 빠른 포심과 궤적이 완만한 빠른 슬라이더,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생각하는 타자들은 갑자기 느린 커브가 들어오면 대처 불가하다. 타이밍을 뺏는데 대단히 유용하다.
이의리는 “커브가 좋아서 쓰고 있다. 체인지업이 안좋아서 안쓰는 것은 아니다. 커브는 작년 부터 나 혼자 던지면서 배웠다. (서재응) 코치

님이 계속 안좋을 때의 습관까지 지적하며 해주신다. 각이 좋으면더러 제구도 좋아졌다. 폼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리는 데뷔 2년 만에 본격적인 포피치 투수로 거듭나고 있다. 더욱이 이날 한동회를 상대로 최고구속 153km짜리 볼을 던져 삼진을 잡았다. 자신의 최고 구속 타이이다. 평균구속도 145km를 기록했다. 양현종의 뒤를 잇는 좌완 에이스의 길을 향해 가고 있다.
아직은 밸런스가 흔들리며 기록은 있다. 양현종도 완벽한 에이스가 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의리는 남은 경기에서 두 가지 유의미한 기록을 정조준하고 있다. 데뷔 첫 규정이닝(144이닝)과 첫 10승이다. 11.9%이닝을 소화했고 7승을 기록 중이다. 앞으로 8경기 정도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5이닝씩만 던져도 40이닝이다.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다. 단, 아프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인지 “작년 내 실수로 다쳤는데 올해는 장난도 줄이고 있다. 안아프고 끝까지 던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뉴스

손흥민, 첼시전 침묵...“제임스 수비에 막혀”

토트넘, 첼시와 2-2 무승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손흥민(토트넘)이 첼시와 경기에서 상대 수비에 묶여 침묵했다.
손흥민은 1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스타디움 브리저에서 벌어진 첼시와의 2022-2023 EPL 2라운드에서 선발 출전해 공격포인트 없이 후반 35분 교체됐다.
이적생 이반 페리시치가 손흥민의 자리를 대신했다.
토트넘은 후반 추가시간에 타진 해리 케인의 극적인 동점골에 힘입어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지난 6일 사우샘프턴과 개막전에서 도움을 올리며 산뜻하게 출발했던 손흥민은 2경기 연속 공격포인트에 실패했다. 첼시의 맞춤형 수비에 고전했다.

축구통계전문 '후스코어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6.4점을 부여했다.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 11명 중 라인업 세세 농(6.2점), 데얀 쿨루셉스키, 골키퍼 위고 요리스(이상 6.3점) 다음으로 낮은 평점이다.
영국 매체 '이브닝스탠다드'는 “손흥민은 전반 45분 동안 최고 활약을 펼친 리스 제임스(첼시)에게 막혔다”며 낮은 평점 5점을 줬다.
이에 반해 제임스에 대해서 “지난 시즌 득점왕 손흥민을 전담 수비했다. 손흥민을 고요하게 만든 선수는 누구나 매우 높은 평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호평하며 가장 높은 9점을 줬다.
‘풋볼러’도 손흥민에게 평점 5점만 부여했다.
손흥민은 오는 20일 울버햄튼과 3라운드에서 황희찬과 ‘코리아 디버’를 준비한다.
뉴스

이원영 9단, 입단 13년만에 첫 우승...국수산맥 국내대회 우승

홍성지 9단 상대 2승 4패 열세 극복하고 우승 차지



이원영 9단이 입단 13년만에 감격의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 9단은 15일 전라남도 신안군 신안군체육센터에서 열린 제 8회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국내프로 토너먼트 결승전에서 홍성지 9단을 상대로 273수만에 흑 7점반승을 거뒀다.
흑반으로 시작한 이 9단은 초반 AI 승률 그래프 분석 수치가 30%까지 떨어지며 불리하

게 출발했다.
그러나 상변 백 대마를 효율적으로 공략하는데 성공하며 승률 그래프는 흑 105수에서 66.3%, 흑 117수에서 93.4%까지 치솟았다.
승기를 잡은 이 9단은 이후 중반전에서 역전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유리한 국면을 지켜냈다. 홍성지 9단을 상대로 2승 4패의 열세를 극복하고 우승을 차지하는 순간이었다.
권갑용 도장 출신으로 2009년 입단한 이원영 9단은 그동안 세계대회 본선에 7차례 올랐으나 지난 2017년 제23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에서 8강에 오른 것이 최고 성적이었다.
국내 대회에서는 지난 2018년 KB국민은행 바둑리그에서 포스코컴텍 우승에 큰 공헌을 세운 바 있으며, 이번엔 첫 국내대회 결승에 올라 대회 정상까지 차지하게 됐다.
국내프로토너먼트의 우승 상금은 2500만원, 준우승상금은 1000만원이다. 제한시간은 각자 30분에 초읽기 40초 3회가 주어진다.
제8회 전라남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는 전라남도, 전남교육청, 강진군·영암군·신안군이 공동 후원하고 한국기원이 주최하며 한국기원과 전라남도바둑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신안=이명주 기자

전남불링, 제37회 대통령기 전국대회서 우수한 성적

광양·곡성·고흥 일반부 활약에 이어 전남과학대·세한대 대학부 활약도 빛나



전남 불링팀들이 “제37회 대통령기 전국불링대회”서 빛나는 활약을 펼쳤다.
전라남도불링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경북 구미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23회 대한불링협회장배 전국불링대회에서 총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7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경북 구미시북합스포츠펀드에서 열린 남자대학부 경기에서 전남과학대(서정민, 송세정, 김동현)는 총점 2,713점 평균 226.1로 3인조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서 전남과학대 서정민과 김동현은 남자대학부 마스터즈 경기에서 각각 2,349점(평균 234.9), 2,340점(평균234.0)을 획득해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여자대학부에서도 전남과학대 권혜인 선수가 개인전에서 874점(평균218.5)점을 획득해 은메달을 획득했고, 전남과학대(임재연,

이지원, 한미향, 최한울, 권혜인, 정윤경)가 5인조 예선에서 2위, 최종 tv파이널 결승전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세한대학교(박대희, 강태영, 송승민)도 남자대학부 3인조 경기에서 2,618점(평균218.2)을 획득해 전남과학대와 배재대에 이어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어서 5인조 예선에서 세한대(송승민, 김호진, 강태영, 김준상, 이승철, 박대희)가 3위, 최종 tv파이널 결승전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일반부 경기에서도 전남선수들의 활약은 빛났다.
여자일반부 경기에서 곡성군청과 고흥군청의 활약이 돋보였다. 먼저 곡성군청 하유림이 849점(평균212.3)으로 개인전 동메달, 곡성군청 장미나가 2,232점(평균223.2)로 마스터즈 경기에서 은메달, 5인조 경기에서 이영송, 김예슬, 김문정, 하유림, 김현미, 장미나(이상 곡성군청)이 예선에서 1위를 차지했고, 기세를 이어 최종 tv파이널 결승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고흥군청 이미소와 남은설은 2인조 경기에서 1,673점(평균209.1)로 동메달, 이송원(고흥군청)이 3,298점(평균206.1)으로 개인종합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일반부 경기에서 광양시청 최복음이 총점 2,361점(평균236.1)로 마스터즈 동메달, 5인조 경기 예선에서 최복음, 백준윤, 백승민, 박재훈, 가수형이 총점 4,510점(평균225.5)으로 1위로 tv파이널 결승전에 진출했으나 결승전에서 아쉽게 은메달을 차지했다. 김재환기자

전남도청 근대5종팀, 문체부장관기 단체전 우승

서창완 활약에 힘입어 단체전 우승...개인전 '금' 2관왕 달성



전남도청 근대5종팀이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전남 해남 우슬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제3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도청 근대5종 서창완은 김민식(한국체대, 20)과 전남대표로 팀을 이뤄 대회에 참가했다.
서창완은 개인전에서 첫 경기 펜싱 243점으로 3위로 시작해 수영 304점(12위), 레이저런 689점(1위), 승마 293점(13위)로 경기를 마무리해 종합순위 1위(총점 1529점)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서창완은 레이저런에서 핸디캡 출발로 3위로 출발하여 1위와 39초 차이로 출발하였으나, 윌등한 기량을 선보이며 레이저런 1위를 차지했다.
한편, 김민식(한국체대, 20)은 펜싱 187점(23위), 수영 303점(15위), 레이저런 670점(4위), 승마 281점(19위)로 총점 1441점을 획득해 종합순위 13위를 차지했다.
전남대표로 나선 서창완과 김민식(한국체대, 20)은 총점 2970점으로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서창완(전남도청)은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2관왕에 올랐다.
강동윤 전남도청 근대5종 감독은 “민고 따라와준 우리 선수들과 항상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전남도청 관계자 분들, 항상 선수들의 컨디션과 경기력향상을 위해 힘써주는 전남도스포츠과학연구소에게도 고맙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